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신지서 강해

이스라엘의 열린 샘

(스가랴 13:1 - 6)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

유대주의를 고집하는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여주시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를 한 후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박한 마음을 고치신 후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1. 용서와 씻음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1절).

하나님은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 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상은 스가랴서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시 36:9).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렘 2:13).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렘 17:13).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샘이 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생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역은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의 권세와 더러움을 씻는 하나님의 샘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되며, 이 샘은 그들이 찌른 메시아의 피를 말합니다. 메시아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요 19:34-35).

본래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뼈를 꺾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므로 서서히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구약의 희생제 사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희생제사에서 피는 죄 씻음을, 물은 성결의식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있는 후에야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13장 1절 말씀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피와 물로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샘이 저들에게 열리게 됨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사유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샘물, 곧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모든 계시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회개는 지연시키면 안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샘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땅의 정결

도덕적 부패로부터 내적 청결함을 받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쳐주시고 환경을 성결케 하신 그곳에 용서 받은 백성들이 거하게 하십니다(2, 6절).

회복된 유대에서 더 이상의 더러움을 용납되지 않습니다. 땅의 정결은 모든 악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악은 사람에게 있지만 사람이 회개하면 땅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앗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남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망한 이유로 우상숭배와 거짓 선지자를 들었습니다(2절).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는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때 4백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갈멜 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라의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여 싸우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성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곧, 우상은 이 땅에서 기억도 되지 못하도록 버려야 할 것과(2절) 둘째, 거짓 선지자의 존재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 것과 셋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참 목자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사유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샘물, 곧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종말론적 최후 계시가 있는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것입니다(마 5:17).

메시아가 오신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4절). 예언의 본래 의미는 미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세우며, 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 섬김위원 일부 변경되다

순례자 668호에 발표된 2005 섬김위원 중 일부를 수정 발표하다

부서	변경전	수정안		
예배위원회	위원장	최종시	김영준	
	찬양예배 안내부장	김대홍	김대웅	
교육위원회	유년부 부감	김양숙	최미아	
	장년2부 부장	이번생	김상철	
	장년4부 부감	이윤희	이영자①	
	디아스포라부 부장	김상철	이번생	
	찬양대 양성반 부감	김규태	유형석	
찬양위원회	호산나 대장	황정임	이영희⑥	
	시온반주	김지현	양경실 · 조현정	
	은빛반주	홍혜란 · 양경실	홍혜란	
교구위원회	4교구간사	김금준	김규태	
70인전도대	1차장	주경자	주경자	
	2차장	박이선	한상준	
	3차장	최규초	박이선	
	4차장	이인선	수요노방팀장	이경구
			수요야간팀장	최규초
		목요축호팀장	이인선	
		토요노방팀장	박현영	
		토요야간팀장		
		중보기도팀장		
		문서전도팀장		

2005년 성경암송대회

글로벌 새서 전권을 범위로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을 기하여 열리고 있는 성경암송 글로벌 새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강조된 옥중서신이 대회의 2005년도 범위가 정해졌다. 내년에는 사도 바울이 다. 로마의 옥중에서 쓴 글로벌 새서를 암송기로 하였다.

여전도회 남선교회 총회일정 확정

기도로 준비된 일꾼을...

우리교회 남녀 선교(전도)회 총회일정이 아래와 같이 이번 총회부터 회장의 중임을 가능케 하였다. 각 지회의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중경회장은 다시 회장이 되지 못한 활성화를 위하여 능력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겠다는 제도 때문에 지도력이 약화된다는 의견이 있어 교회 것을 바란다.

남녀 선교(전도)회 및 기관 총회 일정표

남선교회	총회일자	여전도회	총회일자
빌립(30~39)	11월 13일(토) 오후 6시 (104호)	도르가(30~39)	11월 11일(목) 오전 11시 (403호)
안드레(40~44)	11월 13일(토) 오후 5시(교회)	루디아(40~44)	11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602호)
베드로(45~49)	11월 13일(토) 오후 6시(104호)	보 비 (45~49)	11월 9일(화) 오전 11시(502호)
바울(50~54)	11월 24일(수) (교회)	마리아(50~54)	11월 23일(화) 오전 11시(교회)
엘리아(55~59)	11월 14일(주) 찬양예배후 (802호)	에스데(55~59)	11월 17일(수) (교회)
모세(60~64)	11월 6일(토) 오후 6시(민번나)	한나 (60~64)	11월 14일(주) 오후 3시 30분(101호)
아브라함(65이상)	11월 7일(주) 오후 1시 30분(104호)	사라 (65이상)	11월 14일(주) 오후 3시 20분(502호)

· 살롬권사회 : 12월 1일(수) 12시 30분(미스비홀)

· 스테반회 : 12월 3일(금) 오후 7시(502호)

· 권사회 : 12월 1일(수) 12시 30분(웨스트민스터홀)

오르간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 (Chamber Music Concert with Organ) 11월 9일 (화) 12시

강혜미 (오르간)

-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 미국 맨하탄 음대 졸업(석사, 박사)
- 미국 뉴욕에서 초청연주와 봉헌 연주
- 주로 Concert Organist로 활약
- 현 Yonsei USA Woman Chamber Choir Director

이성심 (오르간)

-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맨하탄 음대 졸업(박사)
- AGO 콩쿨(미국 오르가니스트 협회) 주최 Westchester Chapter에서 입상 · 서울 신학대학 겸임교수
- 한세대 출강
-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피택집사 · 권사 면접 고시일정 발표

지난 6개월간 교육훈련을 받아 온 피택집사(46명) 과 권사(39명)은 오는 11월 9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당회고시와 당회원 면접을 갖는다. 그리고 소정의 과제 물을 제출하신 분은 오는 11월 28일(주) 오후 5시에 임 직케 된다.

신임 서리집사 · 교구일꾼 추천 및 교육 일정

우리교회 당회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서리집사로 임명받는 후보자를 11월 7일(주) 찬양예배 후 임시당 회에서 추천한다. 11월 8일(월) 개인통보를 받은 성도 는 11월 17일(수)이나 21일(주)에 교육을 받고 24일 (수)이나 28일(주)에 당회의 면담을 거친 이들은 12월 5일(주) 2004년도 서리집사로 결격사유가 없는 이들과 함께 예배시간에 임명케 된다. 교구일꾼은 11월 21 일(주) 찬양예배 후 임시당회를 거쳐 12월 5일(주)에 임명을 한다.

중 · 고 · 대학 · 청년부 추수감사절 찬양

11월 14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2004년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준비하기 위한 교회 학교의 준비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는 추수 감사 절을 맞아 오는 14일(주)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각각 찬 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서별 발표를 진행하 기로 하였다. 이날 찬양을 발표하기 위해 각 교회학교에 서 준비하는 찬양곡은 다음과 같다.

- 대학부 -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아카펠라 찬양)
- "Lord, I'll give you my heart" (영어찬양)
- 중등부 -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수화찬양)
- 고등부 - "Once again" (중창)
- 청년부 - 헬스바 중창단 2곡

10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0월중에 등록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10월중에 등록된 새가족의 명 단은 다음과 같다.

강다운 김경희 김길원 김동희 김팔심 김무열 김미경 김보은 김사랑 김숙연 김유진 김임숙 김자랑 김정현 김주현 김지수 김지연 김지원 김지현 김홍기 김홍술 노재희 박경옥 박득남 박영준 박재현 박준영 박지현 백경운 백선혜 백정원 서순희 서은영 성민규 성필규 소병화 손병수 신경원 신숙기 신정순 심은영 심정순 안영환 안중재 안중혁 양호창 양희선 염경재 염민재 오단삼 오연준 오정숙 오태봉 우영선 이경숙 이경숙 이경혜 이동욱 이동현 이미혜 이상문 이선주 이수정 이유진 이중희 이창수 이창우 이철순 이혜경 임병석 임예경 장우진 장은지 전산희 전상훈 전준호 전희덕 전희진 정귀임 정상훈 정유연 정은혜 정창민 정현영 조민수 조이영 조원익 조주현 조창현 조혜은 조희자 최민준 최연지 최영탁 최장원 최진영 최철호 최혁재 최희재 편혜련 한상국 (이상 101명)

장로가정 탐방 - 민순구 장로 가정편

주의 평안과 위로, 사랑으로 삽니다

민순구 장로님은 이영희 권사님과 슬하에 규용, 규희, 규석, 2남 1녀와 5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신학대학원에 근무하는 장남과 목사사모가 된 따님을 비롯해 온 일가가 전국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권사님은 늘 남을 편안히 배려하고 조용히 섬기는 사람으로, 68년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장로님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고 위로하며 지혜롭게 장로님을 돕고 있으며 성도님들께도 항상 스마일로 섬기며 대접하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은 강력히 만류하셨지만,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서야 겨우 허락을 받았을 정도였다.

서울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상조부(상조위원회)와 갈렙 찬양대, 새가족부, 목회자 세미나 원감으로 수고하신 민장로님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회고하시며 멀리 진해에서 장례를 치렀던 한 성도는 서울에

서부터 홀로 빈소를 찾아준 장로님을 뵙자 감격해 울며 크게 위로를 받았고, 예배 도중 쓰러진 한 성도님을 업고 집으로 달려가 손수 침을 놓고 안마를 했을 때 깨어나 우는 형제를 안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다.

늘 즐겨 부르는 찬송 460장(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슬그머니 눈물이 나신다는 장로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는 것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하셨다.

언제나 조금 손해 보아도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깃들고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자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민순구 장로님은 2005년을 안식년으로 보낼 예정이다.

나소정 (편집부)

사명자대회의 기도

증인의 삶을 아침 햇살에 실어...



박경의 권사(권사회장)

11월은 저마다 사명을 다해 한 해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며 알찬 내년을 준비하느라 분주함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서울교회가 설립13주년을 기도와 전도운동으로 50일간 작정하여 전교인 참여하고 있는 사명자대회 기간 중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비어 종이 되겠노라 다짐합니다.

주신 소명을 감당함으로 사명을 잘 좇아 완수하자는 결단의 행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받은 직임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명을 실천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지나고보면 언제나 부족했음을 못내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의 선창으로 교우들의 공동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메아리 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마다의 가슴에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마고 응답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결코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시고 복음으로 통일조국이 이루어져, 세계를 향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렵돈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결단코 내년에는 헌당의 기쁨을 안겨 주실 줄 믿고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아니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증인들의 8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소망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것입니다.

마치 아침 햇살에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듯 우리의 소망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천국입문 양성 - 성경암송대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동부와 장년부로 나누어 시행된 2004 성경암송대회는 김운호 목사님의 신명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늘 성경을 읽으며 또한 그 말씀을 암송하여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생활이 큰 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아동부의 호응은 어찌나 뜨겁던지 602호실 문을 열고 나왔다 들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어린이들의 청아한 목소리로 말씀을 외우는 모습은 깊어 가는 가을밤을 한층 아름답게 수놓았다.

또한 장년부는 젊음으로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암송한 성경



▶ 성경을 암송한 이이레, 이광, 이인 삼형제

을 외우느라고 정성과 열심을 다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외우는 말씀으로 진땀을 빼는 모습에 603호실은 사뭇 경건한 분위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심사위원 되시는 장로님들 앞에서 지켜보는 가족과 성도님들은 막힘없이 줄줄 외우는 모습에 감탄을, 잘 생각이 나지 않은 구절에서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태우기도 했다.

이날 아동부에서는 교육1국의 김소연 어린이가 대상을 받았는데 소연이는 여러 번 이 대회에 참석해 상을 받은 경험 때문인지 또렷하게 막힘없이 성경을 암송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아끼지 않게 했다. 소연이는 수상 소감으로 성경을 암

송하는 것이 매우 즐겁고 또한 집중력과 암기능력이 생겨 좋다고 말했다. 영어로 암송해

대상을 수상한 이이레군 역시 영어암송 대회에 참석해 상을 수상했었고 침착한 모습으로 어린이가 영어로 성경을 암송해 또다른 감동을 주었다. 테이프와 프린트물을 이용해 반복해 외웠으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다며 소연이나 이레 모두는 내년에는 다른 친구들도 이 대회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장년부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김진달 집사님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무엇이

든지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 꾸준히 말씀을 암송 하게 되었다고 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더 말씀을 가깝게 대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한 것이 큰 은혜라며 다른 성도님들도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소박한 웃음도 잊지 않았다.

성경 암송대회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마쳤다. 상을 수상한 분이나 말씀을 암송했으나 수상하지 못한 모든 분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하셨으리라 믿는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밤늦도록 수고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해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유명희 (편집부)

2004 사명자 대회 연속기도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증인”

(11월 5일 현재)

일시	요일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7	주일	주일예배																							
8	월	이복규 이종만 이은자 이양철 김미향	이복규 김익환 유관모 이양철 김미향	노승성 오유식 이봉규	노승성 오유식 이봉규	이남성 유숙인 오유식 이봉규	이혜순 김영주	이혜순 김영주 이안순	오승민 이부자 송옥혜	김양숙 조원선 배옥연	김인숙 오상애 고경순 신현이 윤정식	김용순 김쌍금 김경자	박종희 전용순	박승희 장덕 전용순	나기태 주경자 안경덕	나기태 김신영	주경자	이영희 이학명 신선주	최미아 이영희 김남옥	이관규 남옥진 윤용근	박분옥 윤종희 김은미 이은희 조학진	최정인 박선자 서경애	김규태 박희애 윤성남 이영희		
		박두호 김규태 박미애 이양철 김미향	박두호 최치순 백예숙	홍성주 최치순 백예숙	홍성주 김금준 이현주	김금준 이현주 김숙자 이남성	박우욱 김훈 정호욱 이승희	백소영 이부자 송옥혜	박창희 김경희 황경신 함은희	최경희 고경순 손재겸 함은희	김경옥 김사라	김경옥	최용길	장정숙 김계문 이영숙 윤숙희 서영세 서경애	서영세 김계순 정정숙 윤숙희 이영옥	한정옥 장영택	신선주 백영자 공진문	김영희 공진문	곽숙 윤옥식 신종건	김은태 윤옥식	김은태 서경애	김은태 김규태 박희애			
9	화	민순구 김순덕 이양철 김미향	민순구 이현우 한영자 김순덕 이양철 김미향	임훈규 김민숙	임훈규 김민숙	김인숙 이남성	양정실 김미진	양정실 이남복 김의순	양정실 김경현 김숙 이부자 송옥혜 남현주	박창순 장영택	수요 1부	방승의 이병선 박영숙 채덕희	장애실 신계순 심재을 강희자 강애자 임윤자	김인숙 한준홍 남순덕 한정선	신현이 여연진 유병옥 최금자 유후자	신기숙 이기범 김중윤 장동학 조상엽	황정희 신기숙 김예숙 이기범	한영순 신기숙 이기범	수요 2부	김규태 박희애 유신	이은희 박분옥 윤종희 김은미 조학진	권혁우 서경애	황연진 정두남		
		이활영 이양철 김미향 정부남	이활영 이양철 김미향 유기간	윤찬오 김용숙 이종창	윤찬오 최낙준	김명심 남태영 이남성	김진의 김인화	정미현 최현인 유성인	서경자 이부자 김정순 송옥혜	김연주 박재숙	이영희 오상애 고경순 홍보 기도팀	송옥혜 김창희 홍보 기도팀	이혜선 김경자	김인숙 김미혜 정정희	김인숙 안영덕	신정순 이영희	이영희	신선주 김재영 왕재승 김진희	김용수 윤영미 송영진 이영선	이민호 김의 이우자 이재원	이민호 김의 서춘식	김경옥 윤영우 이은옥 이학주 서경애	김규태 박희애 이은옥 이학주 조영자 이민연		
10	수	김광신 이인숙 양춘경 이양철 김미향	김광신 강승용 서경애 이양철 김미향	신용식 서정선 김정순	신용식 박정순 현기목	박두영 전영자 배병이 이남성	영미숙 석춘희	정인주 김경애	조영자 이민연 이부자 송옥혜	김양숙 함정희 임명숙	고경순 박이선 송희숙 장정화 이민화 조옥섬	우숙인 나옥녀	최광성 이정연 이인선 김혜자 김경자	최광성 이정연 이인선 김혜자 김경자	김정호 신경희 김예환	김정호 신경희 김예환	오영철 신동기 신선주	오영철 신동기	이민호 김의 이우자 이재원	이민호 김의 서춘식	김경옥 윤영우 이은옥 이학주 서경애	김규태 박희애 박영자 임옥자 서경애			
		오정수 김인순 이우진 이양철 김미향 서경애	오정수 김인순 이우진 이양철 김미향	조정식 최영열 김진진	조정식 한홍현 유관모	최홍철 오홍래 이남성 서경애	허연숙 최봉애 배정자	이신정 김경희 이기연 이영애	최인 이부자 김천애 송옥혜	최소의 남옥진	이영연 김경희 고경순	이영희 김수옥	최미아 엄금순	이관모 삼상열	유율상 장영일	유율상 심재을 장영일	신선주 6교구	6교구	6교구	서춘식 7교구	3교구	원용범 서경애	이경구 김규태 박희애		
11	목	새벽기도회																							
12	금	금요기도회																							
13	토	주말예배																							
14	주일	주일예배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팀 모집

우리교회는 우리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 및 단기선교를 다녀왔던 지역의 선교사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영적 싸움에 동참하며 선교 정보를 교환하고 보다 원활한 선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가능하며 중보기도팀으로 지원한 이들은 매월 1회 선교사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수시로 해당 선교사의 기도제목을 받고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된 신청서를 적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비전2020 운동

· 제4기 군입대자 교육
27일(토) 오후 3시 705호실에서 있다.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대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군 생활소개 VTR상영, 군과 신앙생활, 영성훈련 등을 하게 된다.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찬양예배 시간에 군 파송 준선교사로 담임목사의 축도를 받고 파송을 받을 수 있다.

· 동해안 23사단 세례지원 방문:
11월20일(토) 오전 7시 교회 출발
· 군 복무자를 위한 11월 중보기도회:
11월 7일 (주) 오후 3시30분 102호

등정

- 이종운 목사는 9일(화) 강남노회 정기회에 참여하고 10일(수) 한국교회협의회 주간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위원회, 11일(목) 한국장로교 신학회 17차 월례 발표회를 소집하고 비전 2020 운동 선교보고를 받는다.
- 이사: 이일희 집사, 백영희 권사(11교구)송과구 문정동 웨일리A 211-402 T. 431-3820
- 개업: 김영희 성도(3-18), 수지 참사랑의원, T. 031-262-4275
- 주간식당 봉사: 당회원 (11월7일) 스테반회 (11월14일)
- 금주의 식사: 장덕집사·임인자 집사 가정 (아들 장치훈 중위 자이툰부대 임무 후 귀국감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쪽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주일 저녁 9시5분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2004 사명자대회 8대기도제목 성취되도록
-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파택집사·권사들의 영성과 임직식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